



'커피공화국' 밥집 줄고 카페만 는다

광주·전남 8월 커피점 6000곳 돌파...전년비 16.7% 늘어 총매출 25% 급증...과당 경쟁에 월 매출은 2년 연속 감소 '거리두기 여파' 한식당 등 외식업은 한 달 새 50여 곳 폐업

'커피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올해 커피 전문점 수가 6000곳을 돌파했다. 하지만 '불황형 창업' 증가로 인한 과당 경쟁 탓에 평균 매출은 3년 내 최저를 나타냈다.

15일 국제정 국제통계포털 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 커피 음료점 수는 광주 2549곳·전남 3605곳 등 6154곳으로, 지난해 같은 달(5274곳)보다 880곳(16.7%) 증가했다.

광주·전남 카페는 전달(6080곳)보다는 74곳(1.2%)이 늘어났다.

반면 지역 한식 전문점은 한 달 새 45곳(-0.2%) 줄었다. 지난 8월 광주·전남 한식 전문점은 2만 9690곳으로, 전달보다 광주 19곳·전남 26곳 감소

했다. 한식당 외 기타 음식점도 같은 기간 광주 800곳→796곳, 전남 807곳→803곳 등 한 달 사이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3년 넘게 지속하면서 거리두기 여파를 견디지 못한 외식업소의 폐업이 속출했지만, 카페는 골목 곳곳에서 새로 생겨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신한카드 가맹점 자료를 통해 산출한 커피 전문점 매출액(배달앱 결제 제외)은 올해 1~7월 광주 330억원·전남 356억원 등 6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137억원) 급증했다.

올해 들어 카페 매출액은 aT가 통계 공시를 시작

한 2020년(507억원)과 2021년(549억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규모다.

커피 전문점의 총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월평균 매출액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같은 기간 커피 전문점의 월 매출액은 광주 557만원·전남 607만원 등 58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6만원(-8.8%) 떨어졌다.

1~7월 기준 지역 커피 전문점 평균 매출액은 2020년 812만원, 2021년 638만원, 2022년 582만원 등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특히 광주·전남 평균 매출액은 전국 평균(1143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커피 전문점의 녹록지 않은 영업 여건은 다른 외식업소보다 낮은 진입장벽과 연계된다.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절벽에 내몰린 근로자들이 창업에 눈을 돌리면서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광주 9만9000명·전남 26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2000명·9000명 증가했다.

고정수 전국커피파스타협회총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다른 창업 업종들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커피 전문점 업계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원두·우유값 상승 등 오히려 위기 요소가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며 "커피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 영업한다면 순이익은 당연히 줄어들고 임차료, 인건비, 부대비용을 빼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 가계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 추세와 시장 논리에 의한 원자재값 급등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는 생생대기용 수입 원두 관세 철폐를 넘어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안정 대책을 세우고 일회용품 대체제를 마련해줄려고 노력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디지털 역량 키웠다 디지털 챔피언 워크숍 열어 농협 광주본부

광주지역 농협들이 디지털 금융 역량을 키우기 위한 '광주 디지털 챔피언 워크숍'을 15일 합평에서 열었다.

이날 합평군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디지털 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지역 우수 농협 직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금융 핵심 사업 추진 활성화와 지속적인 사업 성장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금융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 사례를 나누고 디지털 금융 추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고성신 광주본부장은 "농협의 미래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금융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전한다"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는 만큼 고객에게 맞춤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명품 매장 신규 오픈 15일 광주신세계 본관 1층에 새롭게 문을 연 '델보' 매장에서 고객들이 가죽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 3대 명품사인 리치몬드 그룹에 소속된 이 브랜드는 신규 입점을 기념해 오는 20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앱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대별로 7% 상당을 상품권으로 준다. <광주신세계 제공>

전남 쌀 생산량 6% 감소

올해 74만2913t...가뭄·태풍·작목 변경 등 영향

올해 전남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6%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3%)의 2배 수준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현백률(도정 비율) 92.9% 기준 쌀 생산량은 74만2913t으로, 지난해보다 5.9%(-4만6737t) 감소했다.

전국 생산량은 376만3700t으로, 전년보다 3.0%(-11만7900t) 줄었다.

전남 쌀 생산량은 전국의 19.7% 비중을 차지하

는 최대 주산지다.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14.8% 증가하며 6년 만의 풍년을 맞았다.

올해는 일조시간과 강수량 부족, 태풍 한남노 등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재배면적이 감소한 데다 10에이커(a)당 생산량도 줄었다.

전남 쌀 재배면적은 쌀 가격 내림세와 다른 작목 재배 지원 영향으로 전년보다 0.5%(-757ha) 줄어

든 15만4679ha로 집계됐다. 전국 면적은 72만 7054ha로 0.7% 감소했다.

전남 10a당 생산량은 481kg으로 전년보다 5.4%(-28kg)나 줄었다. 전남 생산 단수는 전국 평균 518kg을 밑돌고 감소율도 평균 감소율(2.3%)을 웃돌았다.

올해 벼 낱알이 형성되는 7~8월에 일조시간·강수량이 부족했고 낱알이 익는 9~10월에는 한남노 상륙 등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의 쌀 생산량이 가장 많았고 충남(72만5000t), 전북(62만2000t), 경북(51만 1000t)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북(4.7%↑)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쌀 생산량이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7% 시대' 진입

10월 코픽스 3.98%로 0.58p↑...시중은행 오늘부터 반영 예정

최근 한 달 사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58%포인트 뛰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9월(3.40%)보다 0.58%포인트 높은 3.98%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공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 대비 변동폭(0.58%p) 역시 공시 이후 최대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9월 2.52%에서 10월 2.85%로 0.33%포인트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014년 1월(2.86%) 이후 가장 높았고, 상승폭은 2010년 1월 공시를 시작한

이후로 최대를 기록했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에 보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가 반영된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는 10월 2.36%로 한 달 새 0.32%포인트 높아졌다.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승 폭 역시 가장 컸다.

시중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연 5.18~6.58%에서 5.76~7.16%로, 신한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연 4.48~5.88%에서 4.80~6.20%로 높아진다.

신규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금리도 연 5.82~7.22%로 코픽스 상승 폭(0.58%포인트)만큼 오른다.

/연합뉴스



우리는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도 연 5.74~6.54%에서 6.32~7.12%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금리는 상단이 7%를 넘어서 본격적인 주담대 금리 7% 시대가 시작된다.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퇴임

김선민(사진) 제9대(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15일 퇴임했다.

김 원장은 국무조정실 산업과혁신정책국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등 29년 간 공직생활을 마친 뒤 2020년 3월 광주테크노파크 제9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재임기간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인 1098억원의 인공지능(AI) 펀드 조성, 광주형 소재부품 육성계획 수립, 3년 연속 1000억원 이상 국비사업 유치,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첨

단으로 복합단지 조성 등 성과를 이뤘다.

김선민 원장은 "이제 광주가 정치의 도시에서 산업의 도시로 전환되고 있다"며 "광주테크노파크가 더욱 더 광주 산업발전 선봉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제10대 차기 원장은 김영집 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외부총장으로, 16일 취임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타이어 무상점검 캠페인 열어

금호타이어는 최근 2일간 곡성군 입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무상점검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금호타이어는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타이어 무상점검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금호타이어 광주지점과 CS팀 직원 등이 참여해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타이어 밸런스 점검과 위치 교환, 마모 상태 및 공기압 점검, 워셔액 교체 등 전반적인 차량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이밖에 현장 방문을 통한 타이어 교체 시 특별

할인가를 적용하는 한편, 얼라이먼트 점검쿠폰을 비롯한 와이퍼 등 사은품도 지급했다.

박상덕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장은 "지역민들의 안전운행을 행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매년 꾸준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희 금호타이어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지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인근 독거노인 가정 및 소외계층 가정에 명절 제수용품 등을 전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2002년부터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 중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전남신보 '원스톱 비즈니스 프로그램' 성료

교육·온라인 홍보 플랫폼 구축 등 243명 지원 받아

전남신보보증재단 자영업종합지원센터가 도내 소상공인 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스톱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최근 종료했다.

'원스톱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인택트 마케팅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경영 전략과 해법을 중심으로 스마트 소상공인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밀착 사후관리 및 피드백 등 단계별 과정이다. 전남도내 동·서부권으로 나눠 연간 4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스마트 소상공인 교육'은 소상공인 세무·노무 기초, 온라인 홍보 플랫폼 구축, SNS 마케팅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183명이, '온라인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온라인 판매 마켓 입점지원, 유튜브 및 동영상 제작법 등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60명이 각각 수료했다.

또 업체별로 전달 직원을 배정해 업체별로 개별

과제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세심한 피드백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양수 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두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소비 중심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0.33(+5.68)
↑ 코스닥	744.96(+15.42)
↓ 금리(국고채 3년)	3.753(-0.097)
↓ 환율(USD)	1317.60(-8.30)